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필레몬서

유명한 영화 "대부"에서, 콜레오네 마피아 패밀리의 대부는 상대방 패밀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라면 상대방의 수락 여부에 달린 것인데, 어째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며, 애초부터 거절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바오로가 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보게 됩니다. 그는 콜로사이 교회의 신자(콜로 4,7-9 참조) 필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무스에 대한 일로(필레 10절) 이 편지를 씁니다. 교의에 관한 논쟁을 담은 다른 공적 편지들과 달리, 필레몬서는 두 사람 사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오늘은 이 편지를 함께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필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무스는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자로서 그는 바오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도망친 노예는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기에 바오로는 오네시무스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다시 맞아들이도록,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맞아들여 주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16-17절). 당시 법에 따르면 도망간 노예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주인의 재량입니다. 바오로는 필레몬이 오네시무스의 문제를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접근, 해결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른 한편, 이는 필레몬 한 개인의 문제나 결단을 넘어 필레몬과 함께 모이는 교회 모든 구성원의 호응을 얻을 때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겠기에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기를 기대합니다(2절).

바오로는 먼저 필레몬을 자신의 협력자(1절)로 들어 높이며 예수님과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치하합니다(5-7절). 그리고는 자신의 말이 "사랑 때문에" 하는 "부탁"임을 강조하며,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 안의 한 형제로서 말을 꺼냅니다(7-9절).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9절; 1절 참조)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사로잡힌 몸임을 이중적으로

암시하는 겸손의 표현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자신의 부탁이 필레몬의 "승낙"(원문에는 "동의")을 필요로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9.13.14절).

다른 한편 바오로는 자신과 오네시무스와 필레몬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오로는 오네시무스를 옥중에서 얻은 아들, 쓸모없다가 이제는 자신과 필레몬에게 쓸모 있는 사람, 마침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이로 묘사함으로써(10-12절) 스스로 노예 오네시무스의 위치까지 내려가 기꺼이 한 노예의 "아버지"로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필레몬을 "동지", "형제"라고 거듭 부릅니다(7.16.20절). 신앙 안에서 서로가 형제나 부자지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바오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한 후에야, 드디어 17절에서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무스를 맞아 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의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맞아들이다"라는 그리스어 표현은 그냥 환영의 행위뿐 아니라 진심을 다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오로는 오네시무스가 단지 징벌을 받지 않고 원래의 노예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레몬에게 신앙 안에서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오로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며(20절), 자신의 부탁이 전적으로 필레몬이 베푸는 혜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것은 필레몬의 관대한, 자의에 의한 결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1절에서 바오로는 필레몬의 순종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때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기까지 편지를 읽은 필레몬에게, 그가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필레몬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바오로의 사려 깊은 사랑과 신뢰에 힘입어 이 부탁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오로의 제안은 필레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바오로의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신의 핵심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이며, 교회 공동체의 삶은 상호 형제애를 기반하여 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것을 필레몬에게 말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필레몬과 오네시무스와 같은 신앙의 "형제"임을 자처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필레몬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그의 형제로, 또는 그가 자신보다 더 높여지도록 처신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무스와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 놓음으로써 그를 사도인 자신의 위치로 높입니다. 이러한 바오로의 권고는 신앙의 “형제”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당대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부유한 주인으로부터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신앙 안에서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 이 기존의 사회 계층적 벽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사회적 계층의 높고 낮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여의 정도가 형제들 간에 구분을 짓고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분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이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정체성만이 나와 상대방, 나와 나의 공동체가 이루는 관계의 근간이며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대로, 우리는 편지의 문체에서도 필레몬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오로의 존중심과 배려심이 녹아 있음을 봅니다. 바오로는 오네시무스의 운명을 위해 마음을 쓰는 한편, 필레몬이 형제적 사랑을 발휘할 마음을 갖도록 아낌없이 치하하고 격려하며 서서히 권고를 받아들이게 이끌어 줍니다. 이 마음 씀씀이는 그가 신앙 안에서 드러낸 형제적 사랑과 존경, 배려와 신뢰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필레몬과 콜로사이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형제”가 되었음을 이미 믿고 또 압니다.

그런데 필레몬은 이 편지를 읽고 오네시무스를 다시 맞아들였을까요? 바오로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오로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선의로 가득한 우리 신앙 크기에 맞갖은 형제적 사랑을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필레몬이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오로의 진심 어린 부탁을 받아들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사랑에 힘입어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비추어 묵상하면서 바오로의 권고와 모범에 다시 한번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우리 가 어떻게 형제적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 실천 사항을 성찰해

봅시다.

자료제공: 평생교육위원회